



그림 · 문병성

성형·외모지상주의

침단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성형외과 분야(16세기 볼로냐의 달리아코치코가 코 없는 환자의 팔의 살을 이용하여 코를 만들어 준 일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음)가 있다. 지난 2002년 4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세계 성형학회에서 마르고 뼈대가 튀어나온 얼굴을 부드럽게 해주는 '미세지방이식술' 분야에서 한국 성형외과이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어쩌면 이런 성과는 2002년 현재 한국의 다이어트와 미용성형 규모가 1조5000억 원을 차지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 강남에만 성형수술 병원이 1천 개가 넘고, 어느 여성은 5천만 원을 들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무리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을 강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다. 첫 번째는 외모 자체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모에 대한 상대적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왜곡된 서구화된 미의 기준을 좇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의 효과는 과장하고 부작용은 숨기는 상업능주의가 그 원인이다. 참고로 몇 해 전 한 성형외과의 경우, 안면주사를 제 거 수술 중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고객에게 혈액 검사도 않은 채 수술을 했다가 과다출혈로 사망, 대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유죄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외모 성형수술을 경험한 청소년들 가운데 '수술 후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체험담들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성형수술의 부작용들에 관해 적지 않은 사례들이 있으나 언론이 시청률이나 구독률 높이기 위해 급급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물론 암을 제거한 뒤나 외상으로

박영재 교수의 침단 과학과 불교

신체의 조직을 일거나, 손가락이 잘라졌을 때 시술하는 미세재건 수술, 선천성 안면기형 수술 등은 꼭 필요한 성형외과 분야이다.

해를 몇 마디 더 하기로 하겠다. 가끔 언론에 잘 알려진 몇몇 스님들이 번쩍거리는 금관가사를 입고 행사를 주관하는 모습을 언론매체를 통해 접할 때마다 과연 오늘날 명망 있는 스님들께서 꼭 금관가사를 걸어야만 수준 높은(가) 일반 대중들로부터 훌륭한 스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사실 잘 따져 보면 금관가사 역시 누더기 옷과 똑같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사대(四大):

허망한 껍데기에 집착 안타까운 일 일상 돌아보며 내적 아름다움 다져야

것을 전하셨습니까?' 가섭이 이때 "아나아"하고 부르자, 아나아 "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가섭이 "문전(門前)의 참관을 거꾸러뜨려라!". 이 화두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좇고 있던 아난은 단지 전법(傳法)의 표징일 뿐인 금관가사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그 외 또 다른 전한 것이 없는 지에 대해 묻고 있음을 통해 그의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덧붙여 금관가사에 관하여 필자의 솔직한 견

90여 종의 원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허망한 눈이 법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는 누더기로 하나는 금관가사로 볼 뿐이다. 비단 금관가사에 한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수히 많은 집착을 하며 살고 있다. 좋은 의미 모르면 아니라 황금, 권력, 명예를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생들의 마음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수행하시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보다 철저히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각자 자기의 일상을 순간순간 돌아보며 외모를 포함한 허망한 껍데기들에만 집착하는 일이 자신에게는 없는지 깊이 점검하는 일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자! 어떻게 하면 금관가사를 포함한 일체의 집착을 끊을 수 있겠는가? 필자가 속한 선교회에서 지난 8월 13일 답양 대나무숲 속의 청와현(淸蛙軒: 선교회 광주선원에서 3박4일 선수련회를 가졌다. 초등학교에서 70대 노년객까지 40여명 이상 참나를 체득하려는, 외모가 아닌 내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분들로 이루어진 수련회였다. 함께 수행한 분들 가운데 처음 참석했던 한 분의 수련 후 소감을 소개하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광주에서 하계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박4일 동안 멋진 장소에서 좋은 분들과의 인연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도법사님, 식사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주신 사모님, 함께 했던 도반님들, 낯선 곳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던 청와현의 아름다운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을 어귀에 웅성웅성 피어오던 연꽃과 아름다운 뽕나무가 있던 정경, 서울 올라오면서 잠깐 들렀던 소재원의 대숲 바람소리가 지금도 눈에 아련합니다. 복잡한 도시의 일상에서 틈틈이 이 경험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ipark@ccs.sogang.ac.kr



대학생 70.8% "존경하는 스승 없다"

스승 불신포조

“제가 스승을 모시고 갈 때에는 발로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사미의경)”는 말이 있다. 스승을 존경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생 10명중 7명은 존경하는 스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는 세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학문화신문이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내 주요 10개 대학 5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8%(354명)가 '존경하는 스승이 없다'고 답한 반면 29.2%(146명)만이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여학생들의 75.1%가 '없다'고 말해 남학생 67.7%에 비해 높아 교수사회에 대한 불신이 여학생들에게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교수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에 대해 서강대의 한 교수는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불신 풍조가 학생들 사이에 만연한데다 최근 대학 내 교수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학생들의 불신이 더욱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조차 존경하지 않는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진정한 배움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스승자가 스승을 섬김에는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공경해 존중함이다. 둘째는 은혜를 생각해 잊지 않음이다. 셋째는 가르침대로 따르는 일이다. 넷째는 실증내지 않음이다. 다섯째는 그 덕을 찬탄함이다.

<육량(梁)경>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승을 보았을 때는 곁에서 섬기고 보지 못할 때는 가르침을 생각하여, 효자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 같이 하며, 사람들이 음식을 생각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중심(中)경>



'임제록' 통한 선 공부 25

경계 따라 차별되지 않는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스스로를 믿어 하지, 밖으로 향하여 찾아서는 안 된다. 저 숲 데 없는 경계를 상상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전혀 분별치 못하는 것이다. 예컨대 조사가 있고 부처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가르침의 흔적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한 마디 말을 꺼집어내어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면, 곧 의심이 생겨나 하늘을 비추어 보고 땅을 비추어보며 남에게서 찾고 물느라 매우 바쁘다. 대장부라면, 주인과 도적, 옳고 그름, 재물과 여색 등 쓸데없는 것들을 따지면서 세월을 보내지 말라. 나는 여기서 승과 파를 따지지 않고, 오는 자는 모조리 알아차린다. 그가 어느 곳에 나타나더라도 다만 소리요 이름일 뿐이니 모두가 꿈이요 환상이며, 반대로 경계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 이것이 모든 부처의 현묘한 뜻이다. 부처의 경계도 스스로 자기가 부처의 경계라고 말할 수 없고, 도리어 이 의지할 없는 도인이 경계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가와 나에게 부처 구하기에 관한

여 묻는다면 나는 곧 청정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살에 관하여 묻는다면 나는 곧 자비로운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리에 관하여 묻는다면 나는 곧 깨끗하고 묘한 경계를 내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 말에 골라 다치지 말아야 한다. 범부·성인·중생·부처·보살·불법·세간법·출세간법·바른 견해·삿된 견해·수행·깨달음·점수·돈오·조사선·여래선·주인공·본래면목 등등 모두는

말하는 사람도 돌아보지 말며, 바로 지금 입을 열어서 말을 해보라. 이렇게 하면 말할 수가 없는가? 그저 아무 말이나 해보라. 아니면 지금 이 글을 읽어보라. 어떤가? 어디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며, 어

사물에 응하는 모습 '물 속의 달'

응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열반에 관하여 묻는다면 나는 곧 고요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준다.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되지만 사람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 속의 달과 같다.

결국 말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보는 순간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이해한다.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므로 허망할 수밖에 없다. 뜻에도 쫓아가지 말고, 소리에도 머물지 말며, 느낌에도 구속되지 말고,

면 무엇을 의식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관심과 의식은 모두 모양을 갖추고 있으므로 허깨비이다. 그러므로 말할 줄 아는 것은 이런 허깨비와 달리 따로 있는 것이다. 바로 지금 말할 줄 아는 이것은, 의

식될 수 있는 어떤 사물도 뜻도 그림도 느낌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모양 있는 경계의 바탕이 되어 경계와 함께 나타난다. 경계가 있으면 이것도 있지만 경계가 바뀌더라도 이것은 바뀌지 않고 한결같다. 그러므로 <반야심경>에서는 5온은 다양하게 바뀌더라도 그 모두가 공일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공이라는 것은 한 물건이나 모양 있는 경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공은 고정된 사물이나 뜻이나 그림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모든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살아 있는 것이다. 공이 경계의 생멸변화에 따라 생멸변화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경계가 있으면 공의 작용을 알 수가 있고 경계가 없으면 공의 작용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의식의 생멸변화 위에 서 공에 통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이렇게.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부산무선선원 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교무원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패물 Large Scroll Painting 당간지주 Flagpole Supports

When special occasions are held outdoors, attendants place a huge scroll painting of the Buddha and Bodhisattvas in the open area, instead of using the small image enshrined in the Main Buddha Hall. In the past, there used to be a pair of great stone-supports in front of Main Buddha Hall. Their shape was similar to the flagpole supports at the entrance of the temple though the size was smaller.

특별한 행사 가 야외에서 열릴 때는 개방된 장소에 대웅전에 그려진 작은 석조 대신에 부처님과 보살이 그려진 큰 패물이 걸린다. 예전에는 대웅전 앞에 한 쌍의 지주가 있었다. 그 모양은 절 입구에 있는 당간지주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는 그보다 약간 작다.

In earlier times, at the entrance to most temples, there was a flag to mark the boundaries of the temple compound. The flags were hung on a wooden or iron pole called 'Dang Gan', which stood between two freestanding supports. The flagpole supports are made of stone.

예전에는 대부분의 절 앞에 절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깃발이 있었다. 그 깃발은 두 개의 석조 지지대 사이에서 서 있는 '당간'이라고 불리는 나무나 철 막대에 매달려 있다. 당간지주는 돌로 만들어진다.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육임레정비법혁신판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 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五術之中帝王」이요, 「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 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남녀 관계인지 -남녀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굿)을 통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월에 불을 지킬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은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는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볼 것인지
-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둑을 잡아 주십시오

도둑놈들이 책을 대량 복사해서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 본 책을 개인이 판매하려 다니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부산지사서 전화주문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찾아와서 저와의 연고를 빙자하면서 이 책을 싸게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조직적으로 대량복사 했거나 도용인쇄하여 팔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본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을 구입하셨거나, 개인이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책을 사라고 하는 경우를 겪으실때는 바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함께 알려 주시면 본책을 한권 드리거나 현금1백 50만원을 즉시 사제하겠습니다. 저는 이책을 쓰기까지 최자식을 할땀겨 나두고 7년을 산속에서 신을 했습니다. 또,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이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이 책이 신봉하기로 정중이 되어 환인천역동역자 계위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는 가히 7년의 산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파렴치한 자들이 저의 책 설명 강의를 몇번듣고 저로부터 육임을 배웠다고 자랑하면서 마치 저와의 인연이 깊은양 말하고 다니며 제가 쓴 책들을 대량 복사하여 조직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이 고증을 심본 이해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바로 살게 하는데 협력하여 주십시오. 저의 직통 전화는 02)996-3335입니다. 호사 배상

사주나, 기운이나, 주역이나, 학역이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만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환인천역(真人天啓)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 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말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임시 선지자 취척 승진 때에 임신 가솔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환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妙)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바인더차트 第一式 ● 육임레정비법 혁신판 W1,500,000(후대용) ● 호사 육임강의록 W300,000 ● 강의신청 「육임학당호사숙」 02-998-8683
● 육임레정비법 혁신판 W1,300,000(좌정용) ● 호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W900,0000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